IBK경제연구소 경제금융팀 sylee@ibk.co.kr ☎ 02-729-6899

IBK경제나침반 : 글로벌 경제동향

2017.8

참!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| IBK경제연구소

목차

Ⅰ. 국가별 동향

미　국 : 생산과 소비는 긍정적이나 물가상승세 둔화 우려

유로존 : 소비개선 및 투자증가 등에 힘입어 견조한 경기회복세 지속

중　국 : 수출·생산·투자 등 7월의 모든 실물지표가 다소 약화

일　본 : 2/4분기 경제성장률 2.0%(전년동기대비) 기록, 안정적 성장세 지속

한　국 : 수출·투자가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가운데 소비도 회복세를 보이나, 생산은 부진

I B K 경 제 연 구 소
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

본 자료는 IBK경제연구소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한 비공식 자료이며, 어떤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

Ⅰ. 국가별 동향

□ 미국, 생산과 소비는 긍정적이나 물가상승세 둔화 우려

○ 2/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2.2%(상반기 2.1%) 기록하며 양호한 성장세 유지

- 민간소비(2.7%)가 성장을 주도한 가운데, 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 구조물(8.1%)·설비(3.1%) 등 민간투자(3.3%)는 '15년 3/4분기(3.5%) 이후 가장 크게 증가

○ 산업생산(2.2%)은 원자재 생산이 늘어 광업생산(10.2%)이 증가, 소매판매(4.2%)는 내구재판매(중고차 등)와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(7.10일)로 온라인판매(11.5%)가 증가

○ 반면 소비자물가(1.7%)는 3개월 연속 1%대에 머무름

- 무선통신요금(△13.3%) 하락, 최근 임금 상승률 정체 등에 기인

○ 잭슨홀미팅(8.24~26일)에서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전문가들이 참석해 '역동적인 세계경제 촉진'이라는 주제로 통화정책과 경제현안을 논의

- 옐런의장은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금융규제 옹호에 주력했고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함구

분기지표	'16.Q2	Q3	Q4	'17.Q1	Q2
GDP(전년동기대비, %)	1.2	1.5	1.8	2.0	2.1

월지표	'16.7월	'17.2월	3월	4월	5월	6월	7월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2.2	4.7	4.8	4.5	4.2	3.4	4.2
산업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△1.2	0.4	1.4	2.0	2.1	2.1	2.2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0.8	2.7	2.4	2.2	1.9	1.6	1.7
비농업부문 신규취업자(만명)	29.1	23.2	5.0	20.7	14.5	23.1	20.9
실업률(%)	4.9	4.7	4.5	4.4	4.3	4.4	4.3

□ 유로존, 소비개선 및 투자증가 등에 힘입어 견조한 경기회복세 지속

○ 2/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2.2%를 기록하며 '11년 1/4분기 이후 최고치

- 세계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 지속, 소비개선, 투자증가 등이 경기회복세 원인이며, 저조한 경제성장을 보였던 스페인, 그리스 등의 최근 성장이 경기회복 가속화에 기여

○ ECB는 낮은 물가상승률 문제로 채권매입을 통한 양적완화를 지속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한계로 테이퍼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(FT, 8.21일)

- ECB는 회원국 국채 잔액 중 33%까지만 매입할 수 있는 한도 규정에 따라 한도에 거의 도달한 일부 회원국(독일, 포르투갈 등)의 국채 추가 매입이 불가능해질 상황

분기지표	'16.Q2	Q3	Q4	'17.Q1	Q2
GDP(전년동기대비, %)	1.7	1.7	1.9	1.9	2.2

월지표	'16.7월	'17.2월	3월	4월	5월	6월	7월
산업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△0.4	1.4	2.2	1.2	3.9	2.6	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0.9	1.7	2.6	2.4	2.4	3.1	
실업률(%)	10.0	9.5	9.4	9.2	9.2	9.1	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0.2	2.0	1.5	1.9	1.4	1.3	1.3

□ 중국, 수출·생산·투자 등 7월의 모든 실물지표가 다소 약화

○ 상반기 중국경제는 6.9% 성장하며 기대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, 하반기의 시작인 7월 경제지표는 소비와 수출, 생산과 투자가 모두 둔화된 모습

- (수출) 對美수출(19.8%→8.9%)이 큰 폭으로 둔화되며,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7월 이후부터 미국의 對中 통상 압박이 심해지며 양국의 교역관계가 악화될 우려도 제기
- (생산) 주력 생산품목인 자동차(4.3%)와 휴대폰(0.9%) 생산이 부진하며 6월보다 둔화
- (투자) 당국의 긴축정책 영향으로 M2 증가율이 7월 9.2% 증가에 그치며 민간기업의 투자(7.2% → 6.9%)와 부동산개발투자(8.5% → 7.9%)가 전월대비 둔화

○ 부동산 규제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며, 부동산 가격·투자 모두 둔화세

- 국가통계국(국민경제 운영현황 관련 브리핑, 8.14일)은 부동산시장 과열문제가 해소되고 있으며, '17년 상반기 경제성장(6.9%)에서 부동산의 성장 기여율이 6.2%로 전년동기대비 2%p나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음을 강조

분기지표	'16.Q2	Q3	Q4	'17.Q1	Q2
GDP(전년동기대비, %)	6.7	6.7	6.8	6.9	6.9

월지표	'16.7월	'17.2월	3월	4월	5월	6월	7월
산업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6.0	6.3	7.6	6.5	6.5	7.6	6.4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10.2	9.5	10.9	10.7	10.7	11.0	10.4
고정자산투자(전년동월대비, %)	8.1	8.9	9.2	8.9	8.6	8.6	8.3
수출(전년동월대비, %)	△4.4	△1.3	16.4	8.0	8.7	11.3	7.2
70개도시신규주택가격(전월동월대비, %)	6.3	10.6	10.3	9.9	9.7	9.6	9.3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1.8	0.8	0.9	1.2	1.5	1.5	1.4

□ 일본, 2/4분기 경제성장률 2.0%(전년동기대비) 기록, 안정적 성장세 지속

※ 기여도(%p) : 민간소비 1.0, 민간투자 0.3, 정부지출 0.2, 순수출 0.5

○ 고용여건 개선 및 주가상승에 따른 자산효과 등으로 민간소비 확대가 회복을 견인

- 2/4분기 민간소비는 3년만('14.Q1 3.7%)에 최고치를 기록한 전년동기대비 1.8% 증가

※ 민간소비 증가율(%) : △0.1('16.Q1) → 0.4(Q2) → 0.3(Q3) → 1.0(Q4) → 1.1('17.Q1) → 1.8(Q2)

○ 7월 수출은 글로벌 수요증가 및 소폭의 엔화약세, 기저효과 등으로 13.4% 증가

- 아시아 14.8%(집적회로, 스마트폰 부품), 미국 11.5%(자동차, 반도체제조장비), EU 8.3%(자동차부품, 금속가공기계)
- 반면, 철강재 수출은 가격 급등 및 일본 내 수요확대 등으로 17.4% 감소

분기지표	'16.Q2	Q3	Q4	'17.Q1	Q2
GDP(전년동기대비, %)	0.9	1.1	1.7	1.5	2.0

월지표	'16.7월	'17.2월	3월	4월	5월	6월	7월
산업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△4.2	4.7	3.5	5.7	6.5	5.5	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△0.2	0.2	2.1	3.2	2.1	2.1	
수출(전년동월대비, %)	△14.0	11.3	12.0	7.5	14.9	9.7	13.4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△0.4	0.2	0.2	0.4	0.4	0.3	

□ 국내, 수출·투자가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가운데 소비도 회복세를 보이나, 생산은 부진

○ 7월 수출은 기저효과 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하며 전년동월대비 19.5% 증가('17.1~7월 : 15.8%)

※ 지역별 : EU(10.2%), 미국(7.0%), 중국(6.6%), 일본(4.8%), 중동(△5.4%)

※ 품목별 : 반도체(60.9%), 철강(7.8%), 승용차(7.4%), 석유제품(0.7%)

- (수출 호조 이유) ①유가상승률 하락에도 수출단가는 견조 ②반도체 수요 지속 ③글로벌 수요를 대변하는 기계수출의 단가상승(수출비중 : 기계 8.7%, 반도체 15.7%)

○ 2/4분기 설비투자는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(59.5%) 투자가 늘어 17.6% 증가

- 2/4분기 소매판매는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내구재(4.3%) 및 비내구재(1.6%) 판매가 늘어 1.7% 증가

※ 소비자심리지수(pt) : 111.4('11.1) ⇒ 96.7('17.3) → 101.2(4) → 108.0(5) → 111.1(6) → 111.2(7)

- 2/4분기 제조업생산은 반도체*(△5.1%) 등에서 줄었으나, 기계장비(21.2%) 등이 늘어 0.5% 증가

* 재고조정에 따른 반도체 생산 감소 영향이 컸으며, 일시적 현상이라는 시장의 평가

※ 2/4분기 산업별 생산(전년대비, %) : 기계장비 21.2, 전자부품 7.0, 석유정제 2.0, 화학제품 1.0, 자동차 △0.9, 반도체 △5.1, 통신장비 △9.7, 선박 △15.0

○ 7월 제조업 취업자수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5.0만명 늘어 2개월 연속 증가

- 취업준비생 등을 반영한 체감실업률은 여전히 20%대를 유지하고 있어, 취업애로는 지속

※ 제조업 취업자수 증감(만명) : △6.5('16.7) ⇒ △8.3('17.3) → △6.2(4) → △2.5(5) → 1.6(6) → 5.0(7)

※ 청년실업률(%) : 9.2('16.7) ⇒ 12.3('17.2) → 11.3(3) → 11.2(4) → 9.3(5) → 10.5(6) → 9.3(7)

○ 2/4분기 가계신용(8.23일)은 전기대비 2.1%(+29.2조원) 증가한 1,388.3조원 기록

※ 가계신용(조원) : 1,257.6('16.Q2) → 1,296.5(Q3) → 1,342.5(Q4) → 1,359.1('17.Q1) → 1,388.3(Q2)

- (예금은행) 주택거래 증가, 집단대출의 꾸준한 취급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되었으며,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의 증가폭도 확대(+1.1조원 → +12.0조원)

- (비은행예금취급기관) 상호금융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(3.13) 등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 축소(+7.4조원 → +6.3조원)

분기지표	'16.Q2	Q3	Q4	'17.Q1	Q2
GDP(전기대비, %)	0.9	0.5	0.5	1.1	0.6
GDP(전년동기대비, %)	3.4	2.6	2.4	2.9	2.7

월지표		'16.6월	7월	'17.3월	4월	5월	6월	7월
제조업	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1.0	1.6	3.5	1.9	0.1	△0.4	
	출하(전년동월대비, %)	1.8	0.7	1.6	0.1	△1.1	△0.1	
	재고(전년동월대비, %)	△2.1	△5.0	△5.6	△0.9	1.2	△2.1	
	평균가동률(%)	72.4	73.7	73.1	71.8	71.6	71.3	
서비스업 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	4.9	3.2	2.8	2.4	2.3	2.0	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	9.4	4.2	1.2	2.6	1.5	1.0	
투자	설비(전년동월대비, %)	2.1	△12.6	23.4	14.3	19.5	18.4	
	건설기성(전년동월대비, %)	17.0	16.2	18.1	18.9	15.1	6.5	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	0.7	0.4	2.2	1.9	2.0	1.9	2.2
아파트 매매가격(서울, pt)		101.7	101.7	104.4	104.5	104.8	105.7	106.6
실업률(%)		3.6	3.5	4.2	4.2	3.6	3.8	3.5
수출(전년동월대비, %)		△2.9	△10.5	13.1	23.8	13.1	13.5	19.5
수입(전년동월대비, %)		△7.4	△13.6	27.7	17.3	19.1	19.8	14.5